

종합·해설



박혜자



김성숙



국령애



전종덕



장연주



황치은



유현주



노르웨이 북부 오로라소

25일 노르웨이 북부의 항구도시인 토름쇠(Tromsoe)의 밤하늘 위로 북극광(오로라)의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 북구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극광은 태양폭풍으로 발생한 자기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부딪치면서 나타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구 여성의원 나올까

여야 여성 후보 지역구 할당 가산점 부여

잇따라 출사표... 10년만에 국회 입성 관심

19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을 지역 구로 둔 여성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여야가 4·11 총선 공천에서 지역 구 의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역 구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여성 국회의원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두명뿐. 제9~10대 광산·나주의 신민당 김윤숙, 제16대 광주 동구의 새천년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전부다.

이 같은 성별 불균형을 뚫고 이번 19대 총선에는 25일 현재 7명의 여성 후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박혜자 후보는 “여성 정치인에게 책임지는 정치, 봉사정치는 여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불식시키

고 깨끗한 정치, 소통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며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박 교수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과 중앙은 막힘없는 소통과 이해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과 광주에서 각종 정부 위원회 활동, 지방행정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이해의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광주·전남은 16대 국회 이후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에도 여성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며 “심세한 엄마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은 “남녀차별이 없고 협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광주의 여성지도자는 더 많이 양성돼야 한다”며 “생활을 책임지는 정치, 봉사정치는 여성 후보가 가산점이 결정적 승인 될 수 있다. 지난해 10·27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같은 여성 가산점 때문에 여성후보가 탄생했으나 애석하게 고배를 마셨다.

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강진·영암·장흥의 국령애 예비후보는 “민주 진보개혁세력의 집권플랜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여성 편견’이라는 현실의 벽을 뚫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여성 가산점. 민주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는 자신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에 100분의 20(20%)을 가산한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단체장 출신 여성후보는 100분의 10(1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경선에서 일반 여성후보가 30%를 득표를 했다면 최종 결과는 36%가 되는 셈이어서 박빙의 경선에서는 여성 후보 가산점이 결정적 승인 될 수 있다. 지난해 10·27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같은 여성 가산점 때문에 여성후보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지난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지역별로 여성후보를 20% 할당하도록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서도 장연주·황치은(광주 광산을), 전종덕(나주·화순), 유현주(광양) 후보가 국회 입성을 노리며 지역 구를 훑고 있다.

이들은 여전연에 기대를 걸며 여성 정치인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며 지역구민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에는 어느 총선 때보다 여성 국회의원 탄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의 전반에서는 광주·전남이 개혁적이고 선진적이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에게 문호가 더욱 열린 만큼 여성 국회의원이 10여년 만에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5일 노르웨이 북부의 항구도시인 토름쇠(Tromsoe)의 밤하늘 위로 북극광(오로라)의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 북구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북극광은 태양폭풍으로 발생한 자기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부딪치면서 나타난다.

는 북극광은 태양폭풍으로 발생한 자기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부딪치면서 나타난다.

연합뉴스

한나라 인물난?... 공심위 인선 지지부진

한나라당이 4·11 총선 후보자를 선별할 공심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설 연휴 직후 공심위를 구성,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인물난 등으로 인해 공심위 출범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심위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심위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공심위원장은 내부

향의 가닥을 잡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심위원장 인선 기준으로 ‘엄정·공정하고 정당·정치에 대해 이해가 있는 계파 초월 외부 인사’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심위원장으로 차선으로 조건을 충족할 공심위원장장을 찾기 어렵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정치쇄신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때 논의하였지만, 공심위 인선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심위원장은 내부

에서 얘기를 해 봤는데, 뾰족한 분이 없다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남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하는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심위원장으로는 운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 윤리 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목사,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통하는 법륜 스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설날 만정

- 김종두



평소 안하던 짓 또 나왔다

민주통합당 4월 총선앞으로

기획단장에 이미경 의원



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총장은 통합 세력 간의 학제적 결합과 윤·오프라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장 임명을 계기로 총선 준비 체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경 의원이 기획단장을 맡은 것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전반을 두루 경험하고 당 사무총장까지 맡았던 종친급 인사인 만큼 공천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획단장은 가급적 주중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총선 전략을 만들고 공약 정비, 총선이슈 발굴, 홍보전략 마련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천 일정과 공천심사의 기준을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도 맡는다.

기획단은 당의 실무자 위주로 채우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심위는 15명 이내의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등 당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심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공심위에서의 협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격 심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 물갈이의 폭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통합진보도 총선 체제

이의연기획단장 선임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 준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5일 오후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어 세부 인선 및 전략 수립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9일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이의연 공동정책위원장장을 총선기획단장으로 선임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략의 핵심인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총선 후보를 확정했다. 현재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지역은 150여개로, 20여개 지역에서는 경선이 실시돼 다음 4일까지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

15명내 공심위 이달 출범



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총장은 통합 세력 간의 학제적 결합과 윤·오프라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장 임명을 계기로 총선 준비 체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천 일정과 공천심사의 기준을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도 맡는다.

기획단은 당의 실무자 위주로 채우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심위는 15명 이내의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등 당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심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공심위에서의 협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격 심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 물갈이의 폭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4월 총선앞으로



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총장은 통합 세력 간의 학제적 결합과 윤·오프라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장 임명을 계기로 총선 준비 체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천 일정과 공천심사의 기준을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도 맡는다.

기획단은 당의 실무자 위주로 채우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심위는 15명 이내의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등 당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심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공심위에서의 협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격 심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 물갈이의 폭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4월 총선앞으로



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총장은 통합 세력 간의 학제적 결합과 윤·오프라인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장 임명을 계기로 총선 준비 체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천 일정과 공천심사의 기준을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도 맡는다.

기획단은 당의 실무자 위주로 채우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달 안에 출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심위는 15명 이내의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공심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등 당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심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공심위에서의 협력 국회의원들에 대한 적격 심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 물갈이의 폭과 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